



## 螢雪遺感

朴 學 在(漢陽大·建築史)

H출판사에서 <○○○事典>을 발행한 일이 있다. 도두 6卷인데 「增補版」 1권을 더므로 붙인 총 7권의 묶음이다. 그 <○○○事典>이라는 명칭에 견주어 보면 이주 궁색한 사전이었으나 국내 最初の 간행일 뿐 아니라 나도 다른 분들처럼 辭典과 더불어 자주 펼쳐 보는 처지여서 購入, 「콘스탄티노폴리스」項을 맨 처음에 펼쳐 보았으나 『이스탄불』이란 표시로 유도해 있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폴리스」면 「로마」帝國시대의 古都여서 장장 17세기 동안의 긴 변천을 겪었고, 「이스탄불」이면 「트르코」帝國시대의 古都여서 그 3분지 1인 6세기 동안의 변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구별될 都市史를 획일시하는 것도 비판적 논의의 꺼리가 되겠지만 더 회피한 것은 『콘스탄티노폴大帝가 건설』했다는 해설문이다. 「로마」史에는 「콘스탄티누스」라든가 「콘스탄티우스」라는 皇帝는 있었으나 「콘스탄티노폴」이라는 황제가 없었음을 단언해 둔다. 「콘스탄티노폴리스」라 불리우는 都名의 유래는 원래에 「부진티움」이던 것을 「콘스탄티누스大帝」가 新首都로 삼고자 都市計劃令을 下達, 還都(A. D 330)하여 帝名대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 命名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 事實에 대한 <大英百科辭典(Encyclopaedia Britannica)>의 해설문은 더 명백하다. 더욱 落膽케 한 것은 이 古都가 「보스포러스」해협의 南쪽에 위치해 있다는 해설문일 것이다.

그래서 發行人 K氏에게 정정하기를 정중히 권고해 주었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도 이 한 項의 誤記 가담에 <○○○辭典> 전체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기에 잊어야만 했다. 과거에는 16권으로 증보했노라는 광고가 大書特筆로 넘나들기에 예의 「이스탄불」항을 照會해 본즉 그 誤記가 으젓하게 그대로 轉載되어 있지 않은가. 이 H출판사가 발행한 <○○文化史>의 「페르샤」編에도 큰 誤記가 너무 많다. 예컨대 「페르샤」가 駱駝戰術로 복진하여 小「아시아」지방의 「류디아」를 정복했음에도,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기도 하여 그 알팍한 刊行目的에 속은 내 자신을 도리어 탓해야만 했다.

분명히 이러한 출판물의 論文內容은 정당한 史記를 뒤엎는 詐記로 점철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것을 정정하지 않으면 이 詐記는 영원한 진실로 남게 된다. 그래서 정정하도록 또 지적해

주었으나 이 또한 꿀떡은 병어리처럼 咸口一邊到였다.

「〇〇大辭典」도 내가 애용하는 책중의 하나이다. M堂의 발행이다. 애용하기 시작한지 몇 년 후에 그 누락된 어휘중에서 예컨대 안무(按舞), 미답(未踏), 철군(撤軍), 제작(制作), 벽감(壁龕), 소입자(素粒子)…… 인간상(人間像), 다탄두(多彈頭), 연립주택(聯立住宅), 건축양식(建築樣式)……등의 40여종에 이르는 단어를 삽입하도록 해 주었음에도 이 또한 一句의 응답도 없었다.

출간하노라면 誤記·誤植·漏落 등의 미흡됨이 있기 마련이고, 그 完璧에 가까워 질 내용은 몇 차례의 개정판을 엮어 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미흡됨이 독자로부터 권고되고 지적되면 可타否타의 댓구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루살이의 벌레도 종족의 미래를 위해 알을 까는데, 우리 사회의 기업인이라 자처하는 출판업자나 文化人이라 自惚하는 학자들이 자행하는 이러한 과묵의 정신상태야말로 한국인이 지니는 意識構造의 불건전함과 비굴함을 돋보이게 하는 증거라고 詰難한들 항변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세계사〉라는 저서의 내용은 또한 어떠한가. 舊「바빌론」제국이 「앗시리아」제국에게 정복당한 것을 「ฮิต타이트」제국에게 정복당했다느니, 또는 古代의 「이집트」문자가 象形文字였음에도 表音文字라고 斷論하는 등, 우선 50페이지를 읽어나가기만 해도 25여 곳의 誤記와 虛說이 발견되는 터이다. 이것이 某대학의 C교수가 저술했다 했고 문교부가 檢定했다고 하는 고등학교용의 교과서이니 더욱 가관이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교과서로 세계사를 익혀 입은 고교생들의 피해이다. 설혹, 前撤을 밟지 않도록 善意의 권고나 지적을 해 본들 이 또한 默殺의 보복만 되받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外國人의 경우는 아주 다르다. 「이집트」의 〈피라미트學 入門〉이란 책을 읽은 바 있다. 原著는 「프랑스」의 考古學者 「제이 로에르」씨이고 譯者는 日本 A신문사의 S씨이다. 전체의 20%나 誤記된 卷末「釋注」文의 訂正文을 「가마꾸라」市의 자택에다 부송해 준 즉 10여일도 못되어 그 訂正文을 전적으로 긍정하여 받아들이면서 增刊 때에 校正하겠노라는 요지와 감사문이 날아 왔었다.

그것은 예의적이거나 형태적인 통지서가 아니고 극히 人間的이고도 抒情的인 내용의 親筆事緣이었다. 이리하여 지겨움도 學問的 交信이 있기를 여러번, 지금 그 사연의 묶음이 다락房에 두툼히 놓여 있다.

S氏は 나를 「이집트」학(Egyptology)의 大家로 여기는 터이다.